

<하기 글은 2015년 4월 1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의 기세도 한풀 꺾였던 지난 3월 25일, 삼성전자와 지역사회간 소통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3월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따뜻해진 날씨만큼 훈훈한 의견들이 오갔던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지금 초대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의 활발한 노력은 현재 진행중!



삼성나노시티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3월 정기회의는 다같이 달콤한 친해향을 맞으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소통협의회 위원들을 위해 윤나미 위원(기흥동)이 준비한 특별 선물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삼성전자 이승백 의장의 인사말이 있었는데요. 삼성나노시티를 방문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곁들여 모두의 흥미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서 지난 1월 정기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안전에 대한 피드백과 3월 정기회의의 안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생활안전과 건강한 삶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져서인지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의 환경안전에 관한 내용이 3월의 안전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먼저 환경안전그룹 정상윤 부장이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의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안전 관리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의 대기, 수질 등 배출물질 관리는 법으로 정한 기준을 준수 함은 물론이고 그 보다 10배 정도 강화된 사내 기준을 마련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TMS(Tele-Monitoring System)라는 장치를 통해 배출물질의 농도와 같은 DATA가 감시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환경시설 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위원들은 사업장의 배출물질 관리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궁금증들이 해소 되었다며 의식이 커져 불신이 되지 않게 지역주민들에게 먼저 다가와 삼성전자를 바로 알리는 소통활동도 필요하다는 조언과 함께 사업장 안전관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도 잊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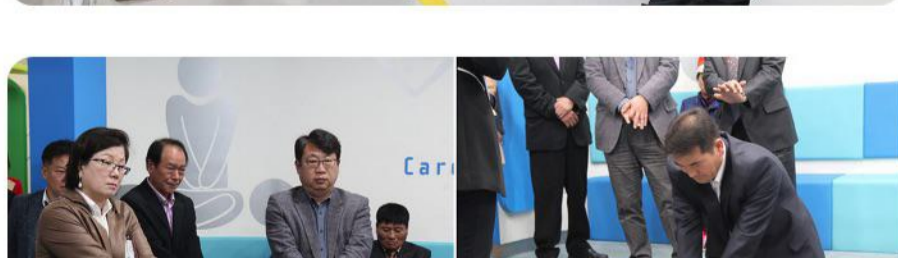
그리고 삼성전자 DS부문이 최근 2개월간 진행한 주요 나눔 행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지역사회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는 'Cafe 体 용인중앙시장점 오픈' 소식을 비롯하여 지역이웃과 설 명절을 함께 했던 '설날 희망나눔 봉사활동',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4년째 펼쳐 오고 있는 '오케이365 희망천사', 그리고 봄맞이 지역사회 대청소 등 다양한 나눔 활동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활동 내용들은 소통블로그에서도 빠짐없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정된 삼성전자 사회공헌활동 내용을 전달하고 자유토론 시간을 가지며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 3월 정기회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용인 소통협의회 위원들, 환경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체험해 보다! 환경안전체험관 방문



3월 정기회의를 마친 용인 소통협의회 위원들은 삼성나노시티 환경안전체험관을 방문하였는데요. 환경보건과 건강관리, 방재, 안전, 화재대피, 응급처치실습까지 총 6가지 테마형 시설을 체험해보며,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기기를 배우고 안전 관리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환경안전체험관 견학을 마친 후 용인 소통협의회 오현영 위원을 만나 소감을 들어 보았습니다.



|" 오늘 진행된 3월 정기회의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삼성전자의 나눔 활동들이 또 한번 인상 깊었던 날입니다. 또, 오늘 견학한 환경안전체험관도 제게는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을 위한 삼성전자의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삼성전자-용인 소통협의회』도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영 위원 / 삼성전자 용인 소통협의회